

## 교육 연합 신문에 바란다

신문에 교육이 더해진다니, 첫 단락부터 기대감보다 우려를 더 표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목적이 내포된 많은 신문은 대부분 자신들이 하는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드는 광고용 문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편하고 진부한 이전의 신문들이 주었던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신감 때문 일 것이다. 확장시절에 만들었던 학급신문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많은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객관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지극히 주관성이 깃들었기 때문에 사회성도 가질 수 없고, 거기에 상업성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단순한 눈요기용 전단지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기존 신문들과의 차이점이 필요하다. 평범한 시보에 그치는 신문을 사람들은 애써 시간 내서 읽지 않는다. 정보는 널렸으나 그것이 정작 나에게 자료가 될 수 있는 지에 따른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렸기 때문이다.

신문 자체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오늘은 미디어 사회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영상 매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온다. p2p, mp3, 핸드폰 등등 굳이 꼭 집어 말하지 않아도 종류를 불문한 매체들이 실생활에 널려있다.

그것들은 너무나 손쉽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공유도 가능하게 해주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매체들과는 다른 하나의 매체로서 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문과 인터넷의 결합이 되어서 꼭 종이 신문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이 점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세 번째 신문의 대상이다.

이 점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신문도 아니고 교육신문이다.

‘교육’이란 두 글자에 내포된 뜻은 이 신문의 내용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 위주의 신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문을 읽게 될 독자들이 교육을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교육을 받는 학생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교육신문인 이상, 그 독자층이 교육자에 한 하지 않고 교육을 하는 자, 교육을 받는 자, 교육과 관련된 자 모두에게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유익함과 그들을 대변하는 내용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홍보성 같은 게시 글이지 기사가 아니다.

정권의 비리와 사회각계 각층의 부정을 고발하는 것은 신문의 고유 기능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이 제 기능을 잃었다는 말도 한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전의 쌍방향적이지 못했던 소통이 가능해진 독자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메모를 하며 사진을 찍어서 신문을 쓰던 옛날과는 그 방식이 달라졌을 지언정 아직은 우리에게 ‘신문’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수단이다. 앞으로 교육연합 신문 역시 독자가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호흡하는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사회 초년생 회사원 신민경 (23. 부산시 서구 서대신문)

## 어서 이관명을 아시나요?

그는 조선 속종 때의 암행어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관명이 잔국을 들고 민심을 살피던 후 속종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통영의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서 거둔 세금이 전하를 모시고 있는 후궁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 하옵니다. 이는 참으로 극심한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속종이 크게 노하여 옆에 있던 벼루를 들어 바닥에 팽개치며 후궁을 위하여 조그만 섬에서 세금을 거둬서 조그만 감히 임금을 나무라는가 하자 이관명은 속종 앞에 엎드리며 말하였다.

“신은 어사로서 어명을 받고 밖으로 나가 1년 동안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전하의 지나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구 하나 전하의 거친 행동을 막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제껏 전하를 방치한 대신들 사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속종이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경의 충간으로 내 잘못을 깨달았소. 또 경이면 큰 일을 감당할 줄 믿고 호조판서직을 맡기니, 앞으로 민폐를 근절토록 잘 단속해주오” 하였다.

나는 해마다 도덕 시간이 되면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조선이 뭔지도 모르는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짙막한 역사 이야기도 들려주며 후궁이 뭔지, 어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옛이야기 한 보따리와 함께 풀어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사 이관명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주니 얼마나 대견한지 모른다.

물론 어찌 보면 정말 도덕 교과서 같은 인물과 지극히 이

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첨단 시대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도덕과 인간성을 논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탕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며 바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바르게 서야 세상이 바르게 움직일 것이고 그 래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 보장될 것이므로.

속종에게 이관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옳고 그름을 잊지 않도록 갑갑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신문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과 그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주는 교육을 위해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색다른 시각으로 교육 현장을 탐색하여 발전을 제안할 수 있는 교육신문.

관고 정직한 눈과 마음을 가진 교육신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송지영 (대전초등학교 교사)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맞아 예비 독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접수됐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게재하도록 한다.

본지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 를 드린다.

<편집국>

## 따뜻한 이야기 가득 담긴 신문이 되길...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연합신문은 전국의 교육청이나 각 지방청 교직원들 학교, 학원선생님들이 보는 신문이니 만큼 공교육, 사교육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것 이라고 봅니다.

교육정책적인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접해지는 신문이니 만큼 그 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정한 교육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내용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중학생인 동생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다투고 들어 왔었습니다. 동생의 담임은 이십대 후반의 여자 분이시고 임신 중 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수업 중 동생이 담임선생님의 실수를 지적하자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수업 때마다 동생에게 무안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발끈한 동생이 몇 마디 하자 담임선생님과 동생이 수업 중에 서로 다투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담임선생님도 선생님으로서 좋은 대처를 하신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간 동생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실 담임선생님이기에 부모님께선 동생에게 아무리 불만스러운 일이 있 었더라도 모두가 있는 교실 안에서 수업 중에 버릇없이 대들었으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라고 하였고 아버지께서도 직접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돌아온 것은 버릇없는 동생에 대

한 비난뿐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선 연신 사과를 드리고 통화를 끝내신 후 담임선생님께서 임신 중에도 힘들게 학교에 나와서 너희를 위해 열심히 수업을 해주신가... 학교에 가서 잘해드리라고 하시고 착잡한 얼굴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생도 사과를 드리고 부모님께선 직접 전화를 하셔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절절한 중학생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지 못하시는 담임선생님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요즘은 교육은 너무 지식교육에만 치우쳐서 인성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한창 중요한 사춘기 시절에 그런 담임 밑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야 자신들이 맡은 과목의 지식전달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담임이라면 단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경험이 적은 젊은 선생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춘기 청소년들에겐 부모나 선생님들의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 할 때 교육에 대한 열정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원해서라거나 학원 교사들의 경우는 돈 때문에 선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완전한 교사의 모습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육관

계자와 교사 분들이 보시는 교육연합신문에서 학생들과 교사분들의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경험 많은 교사분들의 조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는 유치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는 요즘 아이들은 TV 때문에 너무 영악해지고 버릇도 없어서 싫지만 아는 게 미술뿐이라 할 수 없이 미술을 가르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밤 열시, 열한시까지 다음날 수업준비를 할 정도로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뿔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유치원생들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선배와 동료 교사들의 조언과 위로, 도움으로 잘 대처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영악해도 아이들은 아이들인라 조금만 관심거리려 만들어 호기심을 자극하면 금방 아이들의 눈을 하게 돼서 너무 예쁘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런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느끼는 것들을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교사 분들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주는 교육연합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인문정 (29.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인천송학초등학교(교장 송경수)에서는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생활' 강좌를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수요일마다 매주 1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중 세제들의 주성분은 동물성 저급 오일이며 거품을 내기 위한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다량의 화학약품들이 첨가되어 사용 후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자연환경 파괴에도 원인이 되고 있어 이 강좌를 마련하였다. 평소 자녀들의 심각한 아토피 피부 치료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세제와 천연 화장품 제조 방법을 배우게 된다.

###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갑갑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간을 축하합니다! - 채희문(2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축하—ㅋ - 김은숙(29.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교육연합신문”의 첫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계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기사를 읽고 나아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신문이 되길 바라며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 깊숙이에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유익한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변창하(29.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교육이란 타이틀로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신문’이라는 매체가 여타의 방송매체보다 다소 어렵다는 느낌을 주고 또, 학생

들이 신문을 보는 모습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거 리감은 더욱 멀게 느껴지는 것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생각의 차이가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교육연합신문’이 교육과 관련한 전문지로 나아가자 한다면 꼭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갭을 항상 채우고 줄여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다운(29.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기대가 큼니다. 뭔가 특색이 있는 교육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모두가 공감하는 신문이 되길... - 김천수(35.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수많은 신문들이 새롭게 창간하고 있는 이 때에 또다른 신문이 창간한다는 것이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기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모든 곳에서 최고가 되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 임미옥(36.전북 정읍시)

늘 첫 걸음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교육연합신문 역시 첫 걸음이 쉽지않은 만큼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그 첫 걸음으로 인해 앞으로의 걸음은 보다 가벼워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끔은 걷는 길이 험난하고 힘이들수는 있지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교육전문지 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계종사자 모두가 찾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 배진용(39.경기도 고양시)

본지에서는 독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수합니다.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접수처: news@eduyonhap.com